다가구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존주택 소유자 반응 연구

Home owners' response on conversion of existing detached house

to shared house

임수현* 황근영** 이예구** Lim, Soo-Hyun Hwang, Geun-Young Lee, Yea-Koo 양병옥*** 이연숙**** Yang, Byoung-Ok Lee, Yeun-Sook

Abstract

The numbers of the elderly who suffer Empty Nest Syndrome have been accelerated as an aging population has increased vastly and nuclear families have been a dominating family type in modern Korean society. To make the elderly get out of this phenomenon and live actively, the scheme of converting their existing houses into shared houses was set as a hypothetical solution in this study, and finding out the responses of the elderly who owns their own houses is the purpose of the study. A small workshop panel method was used and the elderly aged 55 years upwards took part and they own a detached house that is relatively large for the elderly or the elderly couple to live alone. The workshop was consisted of 3 stages: 1. a survey 2. an interview 3. a site visit. Through this, problems that the elderly have been experiencing within their houses were looked into and the responses of the elderly on converting their houses to shared houses by introducing developed schematic plans. As a result, positive responses from the house owner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fact that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on house renovation and tenants matching programs are supported. Shared houses could provide home owners economical support with rents and help them to feel less lonely. This is one way of supporting the elderly to live and age actively in their later lives. Therefore, this idea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preparing aging, aged, and super–aged society.

Keywords : Shared houses, Home owners response on house conversion, Active aging, Aging in Place, Citizen participation 주 요 어 : 다가구 공동주택, 주택전환에 대한 기존주택 소유자 반응, 활기찬 노후, Aging in Place, 주민참여

ㅣ. 서 론

1. 연구 배경, 목적 및 의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고령층이 혼자 외롭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8 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이며,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 인은 10명 중 6명이다(통계청, 2008). 이로 인하여 빈둥 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을 겪는 노인이 많은 데, 이는 성장한 자식들이 떠나버린 고령층에게 흔히 나타 나는 증후군으로 정신적 불안정, 우울증, 허탈감을 수반한 다 (Wikipedia). 노인은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인해 일상생 활능력이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누 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세대로써, 이러한 심리적·신체 적인 현상을 벗어나서 노인으로 하여금 활기찬 생활이 가 능하도록 하려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외롭지 않 고 노인이 생활 하기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라야 하는데, 시설보다는 집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싶어하 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Aging in Place 개 념을 반 영해서 주거환경을 계획·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주거지환경개선 사업이

*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과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634)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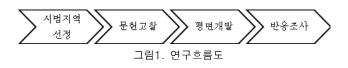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사회통합 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 (과제번호: 2008-8-1033)에 의해 수행되었음 진행 중이다. 이는 과거의 주거지개발 사업과는 다른 것으 로써, 개발지역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커뮤니티의 총체적 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며, 커뮤니티 재생에 있 어서 주민참여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 속에서 주민주도 문 화를 이끌어내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 사업에서 거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으로, 이 지역 거주 노인들은 지역애착도가 높지만, 노후된 주거·주택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를 원하게 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환 경이 개선만 된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 고픈 욕구가 이 지역 노인들에게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다가 구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기존주택 소유자의 반응을 파악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이와 같은 기존주택을 다가구 공동주택으로의 전환 에 대한 노인소유자의 일반적인 반응을 알아보고, 두 번째 로, Aging in Place 개념을 적용한 다가구 공동주택 평면 을 개발하여 이를 매체로 해서 노인소유자들의 반응을 살 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기능 전환에 관한 가능성을 타 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자면 노인을 위한 시설 들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존 거주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대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 대안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주거유형 중 하나인 것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써의 기존주택 소유자의 반응은 앞 으로 다가구 공동주택을 육성시키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 가 될 것이며, 주거지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 개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기존거주자의 협력을 얻는 것 에 초점이 맞춰진 본 연구가 주거지환경개선 사업이 주민 자력형으로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자료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다가구 공동주택, Aging in Place, 주민참여 관련 문헌고찰과 Aging in Place 개념을 도입한 공동주택평면을 개발하였고, 3회에 걸친 소규모 워크샵 패널(small workshop panel)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패널로는, 혼자 살기엔 비교적 크고,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로써 자식들이 출가 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거 주하고 있는 55세 이상 고령층이 선정 되었다. 1회에는 일반적 사항과 현 주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하 였다. 2회에는 기존주택을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개발 평면을 제시하기 전과 후에 그 주제에 대한 반응이 어떠 한 지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였다. 3회에는 조사 대상 자들의 현 주택 현장방문을 하여서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1. 다가구 공동주택

노인주거계획 유형에는 독립형, 공동형, 집합형, 보호형, 간호형, 노인촌형이 있는데, 다가구 공동주택은 공동형에 해당한다(이연숙, 2006). 여기에서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 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 (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 대주택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가 가구가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즉 다세대 주택은 지은 후 분양을 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분양을 할 수 가 없고 다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줄 수 있을 뿐이 다(네이버 용어사전).

공동주택은 비혈연 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인적·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며 한 주택을 공용하는 형태인 공동사용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사용주택은 2인 이상의 비 혈연 관계에 있는 개인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인적 및 재 정적 자원을 공동 부담하여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모든 자녀의 출가, 배 우자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때 선 택 가능한 주택 형태이다(이연숙, 1993; 이연숙, 2006).

2. Aging in Place

Aging in place는 한 지역사회 내에서 친구 또는 이웃 사이에 경비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의존성을 장려하고, 자급자족력을 증진 시키며, 사회적 고립을 면하게 해준다. 노인을 시설에 재배치하는 것 보다 기존에 살아온 지역에 서 계속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소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개인 통제 력, 존엄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Lawler, 2001).

Aging in Place의 개념은 노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 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친근한 주택 또는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나이가 들면 서 드러나는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필요한 주거환경과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Wikipedia; 조인숙 외2, 2007). 3. 주민참여

주민참여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 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 참여라고도 한다.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 여행정의 핵 심적 요소를 이룬다(네이버 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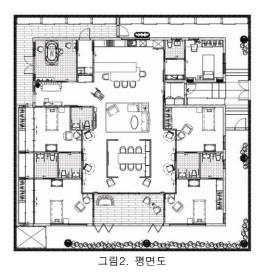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민참여는 참여단계, 방법,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이정수, 2003), 참여 성격에 따라 직접적·간접적 참여, 개별적·집단적 참 여, 능동적·수동적 참여로 구분된다(배응규, 2001). DEMOS Project(2004)에서는 참여활동 과정을 나타낸 "참여 사다리(participation ladder)"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1단계는 주민들에게 앞 으로 일어날 활동과 계획에 대해 알려주는 단계이다. 2단 계에는 정부와 관련된 기구가 어느 특정한 주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언을 참여한 모든 주민들로 부터 얻는다. 4단계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부분 까지 참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참여한 주민들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 이행 결정에 있 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실제 참여과정은 예기치 못한 여러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 복잡하므로, 더욱 다양한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평면개발

1. 평면계획

주택 내 여유공간을 가진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어느 정 도 견고한 현 주택을 현지개량 시 완전히 허물고 개발을 할 수 없으므로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 듯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워크샵 패널의 현 주택은 배우자를 여의거나 자식들이 떠나가서 빈 공간이 많은 주 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경으로 평면을 개발하였 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념의 주택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수용될 만한 범위를 설정해야 하므로 연면적을 약 100평으로 설정하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다가구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생 하면서 서로 관찰하고 보살펴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 정적인 공간 제공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 도록 디자인이 되는 것인데, 노인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관리인이 상주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되고 개발된 평면은 단독 주택 유형인 다가구 공동주택으로써, 노인 4명과 관리인 1명이 상주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그림2).



2. 주거공간별 주요 특징

개발평면을 공간별로 구분 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공간별 특징			
특징			
현관	 노인이 육체적으로 이동이 힘들 경우 대비 - 접근 용이함 		
공용공간	 개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적절 히 존중되는 공간 다양한 사회적 공간 선택 가능 (hard → soft, semi-private → public) 		
노인방	 개인 화장실, 세면대, 샤워시설, 수 납공간 배치 		
Semi-private 공간	 각 노인 방 앞에 개인화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의자에 앉아 편히 쉬면서 사회적 관찰 및 다른 사람과의 교류 가능 		
욕실 및 파우더룸	 노인의 건강 악화 시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씻을 수 있는 공동욕실 부엌과 같은 연결 선상에 있어 관리 및 통제 용이 공동욕실과 파우더룸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고급화 추구 		
활동공간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 지원 		
휴식공간	• 쉬면서 옥외공간과 자연관찰 가능		
옥외공간	 자연채광이 가능 계절변화를 쉽게 인지 - 다양한 감각 자극 실외수납공간 배치 		

표1. 공간별 특징

IV.결과

1. 워크샵 패널의 일반사항

워크샵 패널들은 모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서의 주거기간이 35년 이상인데(표2), 35년 전만 하여도 이 지 역은 부촌이었지만 지금은 낙후되어 저소득층 서민이 주 민의 대다수이다. 이들은 이 지역이 낙후되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많지만, 정이 들고 익숙한 곳이어서 계속 머무르 면서 살고 싶다 하였다.

표2. 워크샵 패널의 일반사항

	주민1	주민2	주민3	주민4
나이	73	60	57	67
성별	여	여	남	남
배우자	무	무	ĥ	ਜ
유/무	7	7	Т	тг
직업	무	무	자영업	기능직
현 주택				
거주				
기간	6년	38년	35년	6년
(지역내	(73년)	(38년)	(35년)	(67년)
거주				
_ 기간)				
현 주택	21평	32평	34평	40평
규모	$/69m^{2}$	$/106m^{2}$	$/112m^{2}$	$/132m^{2}$
방 수	4	11	5	6
건강	나쁨	보통	보통	보통
상태	1.12	0		0
월평균	50-	50-	100-	100-
수입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이들의 지역 애착도가 높아서 계속 머무르면서 살고 싶

은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주거환경의 노후, 건 강악화에 대한 두려움, 혼자여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당 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주를 하지 않고 현 주 택을 개조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여 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워크샵 패널들의 현 주택 내에는 세를 내어 주어 경제 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 주 거환경이 노후쇠퇴지역이어서 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 내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양림동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주거환경이 나아진다면 굳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해온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워크샵 패널의 주택 내 생활 만족도 및 미래주거계획 워크샵 패널들의 현 주택 내 생활 만족도와 미래주거계 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3, 4).

표3. 워크샵 패널의 현 주택 내 생활에 대한 만족도

I	ㅋ급 뻴ᅴ	<u> </u>	5 골 에 ⁻ 에 근 - 드	
	주민1	주민2	주민3	주민4
전반적	2	2	2	2
수면	3	3	3	4
가사일	3	3	2	2
손님맞이	1	2	2	2
여가시간	2	3	3	3
시고 버리고	1 H H H Z (Z () Z D	Z =

* 아주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아주 만족 5

표4. 워크샵 패널의 미래주거계획

	주민1	주민2	주민3	주민4
현재생활 에 적합한 주태규모 /방 수	20평 /3개	30평 /3개	30평 /3개	30평 /4개
필요한 최소 주택규모 /방 수	15평 /2개	20평 /3개	24평 /2개	25평 /3개
미래선호 주거유형	아파트	아파트	단독주택	단독주택
미래선호 동거유형	단독거주	단독거주	단독거주	단독거주

워크샵 패널 모두 현 주택 내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었고, 손님맞이 시 느끼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지역과 주택 모두의 노 후도가 심한 것이 이유였다.

미래주거계획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패널 모두 최소 2개의 방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여성인 주민1, 2는 선호 하는 미래주거유형이 아파트였고, 남성인 주민3, 4는 단독 주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패널 모두 미래에 단독거주를 선호하였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노인이 살기에 물 리적인 환경이 더 나아서 생활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었고,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작은 공간일 지라도 정원을 가꾸면서 땅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한적함을 즐길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했다.

3. 워크샵 패널의 개발평면 제시 전 반응

표4에서 보여지듯이, 패널 모두 미래에 선호하는 동거 유형으로 공동거주보다 단독거주를 선택하였는데, 이유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공간을 가짐으로써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이고, 둘째는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 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성격차이로 불화가 생길 가능성 이 많고, 서로 피해를 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 워크샵 패널의 개발평면 제시 후 반응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이어서 익숙하고, 좋은 이웃들과 오랫동안 정이 들어서 Aging in Place가 가능하도록 해주 는 다가구 공동주택에 대해 개발평면 제시 전의 반응과는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대부분 보였다.

노후에 혼자 생활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 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 건강악화 시 care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불안한 요소 라고 하였다. 특히 건강악화 시 시설로 들어가는 것 보다 내가 계속 생활해오던 집에서 주거하고픈 욕구가 있었다.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서로 교류하고, 세를 내어주어 경제 적인 도움도 얻으면서, 건강악화 시 관리인을 두어 보호를 받으면서 자식에게 부담 되지 않는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발평면 내 각 공간별 반응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 평면 각 공간별 반응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현관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할 때라 해도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어 좋음.	없음.
공용공간	사람들과 함께 어울 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음.	없음.
노인방	개인화장실, 세면대, 샤워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좋음, 수납공간 충분함. 사적 공간이 보장되어 좋음.	개인 방이 하나보다 둘인 것이 더 나음. 방은 적어도 두 개 는 있어야 함.
Semi-private 공간	개인공간이면서 사람 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음.	없음.
욕실 및 파우더룸	건강악화 시 유용할 듯함.	건강할 동안은 공동 욕실이나 관리인 공간 대신 가족들 방문 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 면 좋겠음.
활동공간	서로 함께 활동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음.	능동적인 운동(노인 놀이 문화 -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을 할 공간 부재 아쉬움.
휴식공간	실내에서도 넓은 창 을 통해 자연을 보면 서 쉴 수 있어 좋음.	없음.
옥외공간	수납공간이 많아서 좋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음.	없음.

여성인 주민1, 2는 다가구 공동주택 내 동성끼리만 살 아야 한다고 했고, 남성인 주민3, 4는 혼성이어도 무방하 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주택을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개조 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엔 경제적인 제한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꼭 있어야 하며, 공동거주자 선정에 있어서 친근한 친구 또는 지역 주민과 연계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 참여한 기존주택 소유자인 워크샵 패널들은 가족이 아닌 남과 더불어서 산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 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발평면을 매 개체로 하여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악화 시 항상 care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 빈둥 지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경제적 사회 활동이 줄 어드는 시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주택을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까지 거주해온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하 고, 노인으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면서 활기찬 노 후를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앞으 로 고령화-고령-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존주택의 기 능 전환에 관련된 주거대안 모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존주택 전환을 위해 정 부의 지원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하고, 다가구 공동주택 내 공동거주자들이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호의적인 공 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 (matching program)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존 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친근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존주택 전환 관련 주거대안 모색과 연계 프로 그램 개발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면이 시각적 매개체로 사용되면서, 주민이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 즉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냈듯이, 주민참 여를 도모하며 주거지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하고 자 하는 바를 시각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민들 의 주거지 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그들의 욕구에 가까운 주거지로의 개발을 도모하므로,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 도구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이연숙 (1993),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경춘사
- 이연숙 (2006), 건강주택: Healthful House, 연세대학교 출 관부
- 이정수 (2003), 주민참여적 기법을 이용한 지방 중소도시의 집합주택 주변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19권, 5호, 통권 175호, 79-88
- 조인숙 외2 (2007),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 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제 18권, 제1호, 95-102
- 배응규 (2001), 지역단위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통계청 (2008), 고령자 통계
- DEMOS Project (2004), Citizens Innovation Local Governance: A 21st century approach: Report and guidelines from the Demos Project, Edinburgh Conference
- 8. Lawler, K. (2001), Aging in Place: Coordinating Housing and Health Care Provision for America's Growing Elderly Population,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 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
- 9. www.naver.com : 네이버 용어사전
- 10. www.wikipedia.org